

광주 출신 건축가 김수석씨 베니스 비엔날레 파빌리온 설계경기 1위



광주 서석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공부를 하던 소년은 언젠가부터 신문 속 광고 이면지에 가족과 살고 싶은 상상속의 집을 그려보곤 했다. 도판으로 일했던 할아버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던 아버지, 건축가로 활동중인 작은 아버지 덕에 '집을 짓고 꾸미는 일'에 친근했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건축가가 된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현재는 영국에서 공부하며 건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활동중인 젊은 건축가 김수석(32)씨가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수상 파빌리온 국제 설계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전 세계 유명한 신진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키텐트어워드(ArchTriumph Award)가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두 55개 팀이 참여했으며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메디우스 아키텐트(MEDIUS Architect)가 1등을,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건축가가 각각 2, 3등을 차지했다.

이제 막 세계 건축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은 김씨의 인터뷰를 통해 당선 소감과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선 소식을 전하며 김씨는 "건축가의 꿈을 꾸고 있는 고향의 어린 건축학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설계한 파빌리온은 안개가 자욱한 날의 스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한 삼우설계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대학교 3학년 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과 골목이 전당 공사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하루 아침에 어린시절 추억을 담고 있는 장소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아쉬웠다.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큰 상실감을 준다. 옛집에서 주어진 벽돌 조각은 건축가로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졸업 후 전당 설계를 맡은 삼우설계에 입사했고 속사정을 알고 있던 회사의 배려로 전당 공사 등에 참여했는데 당초 초년 건축가여서 내 자신의 의지를 디자인에 반영하기는 역부족이어서 늘 아쉬웠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2년전 영국으로 떠난 그는 1847년에 설립된 Architectural Association 장학생으로 선발돼 '고밀도 도심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건축 디자인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슈가 된 런던 헤이게이트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아프리카 수단 아이들을 위한 평화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건축의 공공성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또 페루, 이탈리아 출신 젊은 작가들과 건축스튜디오를 설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가는 공간작업을 통해 이용자와 사회를 중계해주는 매개자라고 생각한다. 매개자로서 좋은 공간을 설



뽀로로에서 아이언맨까지

26~29일 '광주첨단영상특별전' 영화 15편 무료상영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29일 'ACE Fair'(국제문화창의산업전) 특별행사 '광주첨단영상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광주첨단영상특별전에서는 애니메이션, 다큐, SF,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15편이 무료로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오후 7시 등 4차례며, 상영관은 '광주CGI센터' 등 4곳이다.

상영 작품은 '에픽-숲속의 전설', '뽀로로 극장판-슈퍼샐매 대모험', '데드-황금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 '더 울버린', '피나', '잊혀진 꿈의 동굴', '남영동 1985' 등 15편으로 모두 53회 상영된다.

27일 오전 11시에는 부대행사로 광주CGI센터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인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이스트스카이필름) 제작 발표회가 CGI센터 시사회실에서 열린다. 김상경, 문정희 등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연계행사로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세계적인 타이틀 시퀀스의 대가 '카일 퍼커'의 초청강연이 예정돼 있다.

'광주첨단영상특별전'은 홈페이지(<http://gaff.gitct.kr>)를 통해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문의 광주CGI센터(062-610-2447), 광주영상복합문화관(062-350-9340), 세계광엑스포주제관(062-372-0550),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062-654-36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상을 좀 더 사람냄새 나게 하는 건축 꿈꾼다”

신진 발골 아키텐트어워드 주관
"베니스 연상되는 '안개' 작품에 투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젝트 참여
영국서 건축 공부, 스튜디오 운영

한 분위기를 컨셉으로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과 해상이라는 요건을 살려 건축물에 안개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한 게 특징이다.

현재 비엔날레 측과 시공 여부를 협의중인 당선작은 완공될 경우 건축과 예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쇼케이스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베니스 하면 떠오르는 시적 요소들을 해상이라는 독특한 요건을 지닌 파빌리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한 작품이다. 안개, 고요함, 바람 등 무형의 요소를 공간화하려는 시도를 해 봤는데 이번 수상에서 그 가능성이 적게나마 증명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조대부고를 거쳐 성균관대 건축과를 졸업한 김씨는

계하고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공간 체험을 유도해 사회에 긍정적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이다. 회사 이름 '메디우스'는 '매개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사회와의 사람을 매개하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좀 더 사람 냄새 나게하는 게 작업의 최종 목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는 안도 타다오다.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가의 정신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정직한 건축가'라는 생각에서다.

대학 시절부터 미술과 협업을 시도했던 그는 지금도 다양한 전시를 기획중이며 최근에는 공간과 인간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한 내용을 담은 그래픽 노블 형식의 시나리오 출간 작업도 진행중이다. /김민기자 mekim@



김수석씨 당선작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 파빌리온

한·중·일 문화예술 한자리에

광주예술인총연합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릴레이공연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예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예술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예술인총연합회는 27일 오후 8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3개국 릴레이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은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판소리가 결합한 창작무용극 'THE DAWN'(여명)을 무대에 올린다. 'THE DAWN'은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행사 때 총괄 안무를 맡았던 국립무용단 출신 윤상진씨가 예술감독을 맡고, 광주 출신 현대무용가 박진수씨가 연출했다. 아픔과 한을 극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빛의 도시, 광주를 표현한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TOKI'(따오기)라는 제목으로 전통 무대예술인 '노'(能·일본 전통

악극으로 무용과 음악이 합쳐진 일종의 일본식 오페라)와 컨템포러리 댄스로 라이브 첼로 독주 선율에 맞춰 창작무용극을 공연한다. 중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민속무용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과 함께 2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3개국 서예 작품 90여 점을 선보이는 '한·중·일 서예'전도 열린다.

한편 이번 예술제는 오는 28일 예정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앞서 열린다. 3개국 장관들은 27일 공연을 관람하고, 28일 오전에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볼 계획이다.

공연과 전시 관람은 무료다. 문의 062-528-92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